

“오늘보다 진화한 내일, 우리의 땀방울은 식지 않는다”

화순고 야구부 '프로선수 육성 명가' 새로운 도약 시동

팀 해체 위기 딛고 더 단단해진 팀 변신... '더 높은 꿈을 꾸다' 최길환 감독 "기본에 충실, 흘린 땀의 진실한 가치를 믿는다"

“고교야구 명문 화순고가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2022년 창단한 화순고 야구부는 전국 고교 야구부 중 몇 안되는 군단위 지역에 소재한 팀이면서도 지역 유망주 육성 시스템을 구축, 성장형 선수를 꾸준히 길러내며 팀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특히 김선빈, 홍건희, 이형범, 김사운(이상 KIA 타이거즈)을 비롯해 고영표(KT 위즈), 김인환(한화 이글스), 이승현(삼성 라이온즈), 천재환, 정진기, 신진호(이상 NC 다이노스) 등 다수의 프로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육성 명가'로 불린다.

화순고는 2024년 야구부 해체 위기를 겪은 뒤 2025년부터 재건에 나서며 더 단단해진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화순고는 2023년 12월 지휘봉을 잡은 최길환 감독을 중심으로 안우주, 김주호, 양찬열 코치를 비롯 선수 29명이 다시 팀을 다지고 있다. 2년 전 선수 수급 문제로 인해 해체 위기를 겪은 이후 사실상 새 출발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 감독

은 지난 1년간 재건에 집중해왔다.

최 감독은 “팀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다시 기본부터 세우는 것이었다”며 “급하게 성적을 내기보다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훈련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학교 측의 지원 속에 야구장과 실내훈련장이 잘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훈련이 가능하다. 선수들은 수업을 마친 뒤 야간훈련을 소화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화순고는 올 시즌 초반 경기력과 집중력 난조로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패배에 순응하기보다는 패배를 극복하는 강한 정신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

전원이 사발하며 각오를 다졌고, 매일 야간훈련에 나서며 체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수비 조직력, 주루 플레이, 투수 운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화순고 야구부 선수들.

(화순고 제공)

영 같은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훈련도 한층 강화했다. 어수선했던 팀 분위기는 훈련을 거치며 빠르게 정비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경남 밀양 가곡야구장에서 열린 2026 고교야구 이마트배 예선 서울고와의 경기 그들의 자금을 말해주고 있다.

비록 연장 승부치기 접전 끝에 5대6으로 패했지만 경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끈질긴 추격과 탄탄한 경기 운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주장 김지현은 “힘든 훈련이 이어지고 있지만 팀이 하나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다

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길환 감독은 “당장 강팀의 반열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지금의 화순고는 패배를 반복하던 초반과는 분명히 다르다. 훈련 강도는 높아졌고, 선수단 분위기는 정돈됐으며, 경기 안에서 버티는 힘도 생기고 있다”며 “시즌은 아직 초반이다. 팀워크와 경기력이 지금처럼 살아난다면 남은 대회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개별 선수들의 성장도 눈에 띄며 “정승희는 빠른 발과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팀

내 핵심 내야수로 자리 잡았고, 손민서 역시 기동력을 앞세운 플레이가 강점이다. 마운드에서는 오건영이 중심을 잡고 있다. 체격 조건이 크지 않지만 140km 안팎의 직구를 던지며 팀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기 운영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며 선수 개인 장점을 언급했다.

“위기를 기회로” 더 단단해진 팀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화순고의 투혼이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며 땀흘리는 많은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존재하길 기대한다.

/박홍중 기자

광주FC, 강원 징크스 깨고 원정 첫 승 도전

내일 오후 4시30분 원정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휴식기 동안 재충전을 마치고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강원FC와 하나원 행 K리그2 2026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A매치 휴식기 동안 회복에 중점을 뒀다. 김경민과 유재호, 신창무, 하승운, 문민서, 김진호 등 주전 선수 다수가 매 경기 출전하며 피로도가 높았던 만큼, 휴식기를 통해 재정비의 시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 등 일부 부상 선수들도 강원전 출전을 목표로 몸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력 운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대 강원은 올 시즌 리그, AFC 챔피언스리

그 엘리트(ACLE) 포함 공식전 9경기에서 6부 3패로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ACLE 일정과 리그를 병행하며 휴식이 없어 이어진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광주에겐 공략할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인 공격수 아부달라가 팀 득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어 경계 대상이다.

광주는 강원 상대 역대 전적에서 9승 11무 10패로 근소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강원전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강원 원정 승리로 징크스 탈출은 물론 역대 전적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는 휴식기를 통해 충전한 체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득점 기회를 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해 원정 첫 승을 노린다.

이번 강원전 승리와 함께 4월 일정을 기본 종



광주FC 프리드손이 지난달 17일 열린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게 시작하며,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홍중 기자

김호령 반등, 공격 흐름 바꾼다

수비는 기본, 출루·주루·장타 갖춘 막강 리드오프 존재감 각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호령이 서서히 궤도에 오르고 있다. 시작은 더뎠지만, 반등의 신호가 뚜렷하다.

김호령은 지난 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4타수 3안타로 맹활약했다.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호령의 활약은 남달랐다. 단순한 말티히트를 넘어, 침체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타구 내용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장타와 밀어치는 타구는 있었지만, 그 감각이 다시 드러난 타석이 나왔다. 1회 첫 타석에서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때렸고, 3회 좌전 안타, 5회에는 좌익수 왼쪽을 가르는 2루타를 추가했다.

그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364(33타수 12안타)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 속에 시즌에 들어왔다. 그러나 개막 SSG 원정 2연전에서는 8타수 무안타로 주춤했다. 이후 LG와의 경기에서 안타를 만들었고, 이날 3안타로 페이스가 빠르게 올라왔다. 단순한 반짝임을 넘어, 안정감이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그의 변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4시즌 타율 0.136으로 커리어 최저점을 찍었던 그는, 2025시즌 타율 0.283(332타수 94안타), 출루율 0.359, 장타율 0.434를 기록하며 완전히 다른 타자로 변모했다. 여기에 2루타 26개를 때려내며 장타 생산 능력까지 끌어올렸다.

통산 타율은 0.245에 불과하지만, 최근 1년간 놓고 보면 '수비형 외야수'라는 정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KIA는 올 시즌 박찬호의 이적으로 내야 한 축에 공백이 생겼다. 유격수는 제리드 데일이 맡고 있지만, 공격 생산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상위 타선에서 출루와 분위기를 만



김호령이 지난 1일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들어줄 카드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김호령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빠른 발과 출루 능력에 장타까지 더하며 리드오프로서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수비에서는 외야 중심을 지키고, 공격에서는 경기의 출발점을 만든다.

아직 완성형이라 보긴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궤적은 성공에 가깝다. 단순한 '테이블 세터'를 넘어, 경기의 리듬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호령이 지난해의 타격을 재현하고, 장타까지 더해진다면 KIA 타선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그 변화의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주홍철 기자

제26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내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건강복지 사회 실현,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헌장 제1조는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모두에게 제약이나 차별 없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작은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머물러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

바로 보편적 신체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인 그들이다.

202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2025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4.8%로 전년 대비 0.4%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을 자주 할수록 행복감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10명 중 3-4명이 주 2회 이상, 1회 30

분 이상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 및 체력 증진, 사회적 교류 기회 확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같은 해의 국민생활체육 규칙적 참여율이 52.2%임을 고려했을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답은 문제 속에 있다. 조사 결과 장애인인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 종목은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70.3%)',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로 '야외·등산로·공원(45.4%)'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7.7%)'과 '체육시설(18.2%)' 이용으로 나타나 간접적으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 이유인즉슨 공공/민간 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개 장애 유형을 지체, 시각, 청각·언어, 발달, 뇌병변, 기타로 6개 유형, 장애 정도는 1-3급 중증과 4-6급 경증으로 분류한다. 즉,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장비와 공간 및 지원을 제공하는 체육시설이 비교적 드물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남구와 북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각 1개 소씩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보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대도 중요하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만드는 노력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를 방지하듯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운동 방식으로 '근처 야외에서 걷기 또는 산책(57.0%)'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건강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예산보다 강한 원동력은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할 수 있다. 함께 해보자.

숨 고르기는 끝났다. 우리가 그려볼 대한민국 걷기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한 기본적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26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많은 참여, 비장애인과 함께 걷는 모습, 그리고 걷기의 동행 문화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

김용원(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광주시 걷기협회 이사)

